

## 外界 實在의 根據

李鍾雨

感覺의 所示가 우리를 欺瞞하는 일이 많은 것은 素朴한 意識도 깨달을 수가 있다. 따라서 世界의 原理, 宇宙 根源의 探求를 目的한 古代哲學은 그 始初로부터 感覺을 그 價値서서 疑心했든 것이다. 古代에 向하여 人智의 溯上이 可能한 範圍內에서 哲學의 始祖라고 불리지는 「탈레스」가 宇宙 萬物의 原理를 물(水)에 歸할 때에 벌서 感覺에 對한 信憑은 動搖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卽 感覺은 우리에게 根源的 眞理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意識되었을 것이다. 엘리아學派는 分明히 그러했다.

感覺의 價値는 哲學의 그의 始初로부터 疑心을 받은 것이며, 또한 이것은 哲學의 本質上 必然한 것이다. 感覺價値가 動搖되면 될수록 眞理의 探求者는 論理를 信憑하는 度가 깊어질 것은 必然한 일이다. 그리고 한 거름 나아가서는 感覺에 對한 信任의 動搖와 아울러 論理 偏重의 傾向은 드디어 感覺을 認識 成立의 要素에서 除外하여 버리고 論理的 推理만으로 認識이 成立된다고까지 생각하는 唯理論이 生한 것도 別로 怪異할 것이 없다. 認識에 있어서 感覺을 無視하고 論理的 推理만에 唯一의 構成을 賦與함으로부터 必然的으로 物的 外界의 無價値性, 虛無性, 假象性이 引出되게 되었다. 如所한 關係로 唯理論은 勿論이어나와 唯理論을 揚棄했다 보여지는 諸學說-一般으로 觀念論-에 잇서서도 外界는 不當한 取扱을 받아온 것이 아닐가.

그러면 外界는 果然 어떠한 것인가. 이 問題의 解答을 企圖하는 것이 이 小論의 任務이다.

「딜타이」는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우리 信念의 根源 及 그 信念의 權利問題의 解決을 論함.」이라는 論文에서 外界의 實在性을 問題化하여 具體的으로 取扱했다. 나는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나의 見解를 論述하는 過程이 있어서 「딜타이」의 上揭論文을 部分的 材料로 使用하려 한다.

Dilthey, Beitrage zur Lesung der Frage vom Ursprung unseres

Cladbens an die Realitat der Aussenwelt und seinem Recht  
(Gesammelte Schriften. Fd. 5 S. 90)

常識에 對한 不滿과 眞理의 徹底的 根源的 認識에 對한 熱望을 가지고 出發하는 哲學은 그것이 어떠한 個人性과 時代性에 制約된 것일지라도 적어도 한번은 通過하게 되는 關門은 現象性的 命題이다. 이 命題에 依하면 「나에게 對하여 現前한 것은 모두 나의 意識의 事實이라는 普通的 制約 下에 있으며 모든 外物은 다만 意識의 事實 或은 意識의 諸過程의 結合으로 나타난다. 對象과 物은 우리의 意識에 對해서만 그리고 意識 內에만 現前한다. 모든 客體는 따라서 色感覺, 抵抗感覺, 密度, 重量 及 이것들 諸印象의 統一的 結合에 歸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對하여 「感覺과 心象은 果然 나의 意識의 成分이다. 그러나 나의 印象과 表象은 나의 밖에 있는 對象에 關係한다」는 것을 主張하여 現象性的 命題에 對抗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의 理由로 그 無力함이 暴露된다. 그 理由는 即 自我와 客體와의 對立과 分離도 結局 우리의 意識內에서만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다. 現象性的 命題를 主知主義의 으로 解釋하여 對象과 物을 表象에 맞는 成分(Vorstellungsmassige Bestandteile)따라서 感覺, 表象 及 思惟의 諸過程으로부터 複合된 것이라는 假定을 세우면 「人間의 認識은 現象의 矛盾없는 關聯의 回復에 成立된다」는 現象主義가 必然的으로 生成된다. 그러나 이 現象主義의 立場을 獨我論과 混同해서는 안된다. 「나의 意識에 屈하지 않은 것은 存立하지 않는다」는 獨我論의 主張은 「認識은 現象의 關聯을 把握하는데 不過하다」는 現象論의 主張 以外的 것을 包含하고 있다. 現象論은 다만 知識과 學問을 意識的 批判的으로 現象에 即 意識에 나타나는 感覺과 心情의 狀態(Empfindungen und Gemutszustande)에 다시 말하면 感覺과 心情 狀態의 共存, 結果, 及 그들의 論理的 關係에 制限하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現狀論的 解釋은 十七世紀의 數學的 自然科學의 刺戟에 依하여 나타난 것이며 그 意圓한 바는 人間認識에 對하여 感覺이나 知性에 一義的으로 나타나는 悟性에 맞는 單純한 要素(Verstandesmassige Elemente)를 求하는데 잇었다. 이 方向은 現象論의 두 部分 中에서 支配的 地位를 가진 것이다. (두 部分이라 함은 (一)은 感覺과 知性에 나타나는 悟性에 맞는-悟性機能에 依하여 統一綜合될 수 있는-單純한 要素를 求하여 이를 더 說明할 수 없는 直接的 意識 事實로 보는 것. (二)는 「쇼-펜하우어」나 「플라톤」과 같이 客體의 成立을 要素에 求하지 않고 意志나 理念의 顯現, 分有(teilhaben)로 보는 見解다). 그런데 第一의 方向은 「흄」(Hume), 「튜루것」(Turgot), 「드알렘베루트」(D'Alembert) 及 「콤트」(Comte) 등의 實證哲學의 創始者나 「칸트」, 「마이논」(Mainon), 「백

크」(Beck) 及 先驗哲學의 幾多의 代表者들이 다 같이 取한 바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結論은 不可避的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感覺의 主觀性은 物理學, 生理學, 及 哲學的 分析等에 依하여 認定된 科學的 產物이지만 感覺과 感覺을 惹起한 原因과의 關係, 同樣으로 또한 知覺과 思惟過程에 伏任한 諸感覺의 結合으로부터 成立된 意識內의 모든 形式과 外界의 무엇과의 關係는 우리에게 對하여 全然未知의 것이다. 그리고 이들 關係形式으로서의 諸感覺도 또한 內的 事實이다. 그런 故로 內的 事實로 成立된 現實은 單純한 現象이 되고 만다. 特히 「칸트」, 「쉴러」, 「벡크」 등은 先驗哲學의 前提 下에서 客體의 假定을 힘 있게 解消시켰다. 先驗哲學의 前提에 依하면 物의 存在에 對한 可能한 陳述(Aussege)은 모두 關係, 實在性或은 現實性의 範疇 內에만 있는 悟性機能에 對하여 概念에 맞는 公式에 不過한 것이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칸트」는 客體 即 物 自體를 假定했다. 그러나 칸트의 批判哲學의 精神은 意識을 超越한 物 自體를 假定할 수 없다. 批判哲學은 直觀에 나타나는 內容에만 悟性概念의 適用을 許하는데 直觀되지 않는 物 自體에 悟性概念인 實體性의 範疇를 適用한 것은 矛盾이다. 따라서 批判哲學의 精神을 透徹한다면 自然物 自體는 消滅될 것이다.

우리는 上述한 바와 같은 主知主義的 前提와의 關係 下에서 外界에 對한 우리의 信念의 起源을 說明하려고 한 數多의 企圖 中에서 代表者의 數로 보아서나 重要性에 있어서나 特히 卓越한 意義를 가진 것 몇가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요한네스·뮐러」(Johannes Muller)에 依하면 感覺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 自身の 內在的 勢力 及(immanente Energie) 內在的 勢力의 狀態를 感覺한다. 그런 故로 動物的 及 至人間的 被造物은 그의 밖에 있는 무엇의 意識을 그의 經驗의 經過, 感覺相互의 結合 及 感覺과의 結合에 歸하지 않으면 안된다. 「폰·헬름홀쯔」(Von Helmholtz)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即 經驗의 性質을 無意識的 推論手續(Unbewusste Schlussverfahren)으로 規定할 수 있다. 우리는 感覺世界로부터 外界의 表象에 到達할 수는 없다. 그러나 變化하는 感覺으로부터 이 變化의 原因으로서의 外的 客體를 推論할 수는 있다. 따라서 因果律은 모든 經驗에 先行하는 사유의 法則이라고 認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故로 헬름홀쯔에 있어서는 外界에 對한 우리의 信念은 先天的으로 우리 마음 속에 作用하는 因果律의 充分한 證據다. 이 證明은 空間의 先天的 起源에 對한 칸트의 論據(經驗에 制約은 經驗으로부터 導出될 수 없다는 것)와 같이 規則에 依하여(Nach der Regel) 形性된 것이다.

그러나 哲學의 近代的 方法의 創始者인 「데카르트」는 意識의 事實을 주어

진 것으로 認定한 故로 意識의 事實로부터 그것을 준 意識 超越者에 到達하는 것이 問題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氏는主張했다. 感性이 우리에게 客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悟性이 感覺의 基礎 안에서 客體의 存在(Dasein)를 假定한다고.

훔(Hume)은 우리의 意識에 나타나는 諸印象, 더구나 類似的한 諸印象의 反復에 依하여 聯想과 習慣에 基礎를 둔 思惟過程을 媒介로 諸印象의 根據로써의 物(Ding)의 存在에 到達하려고 했다. 따라서 훔도 推論에 依하여 外界에 對한 信念을 說明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피히테」(Fichte)는 無意識의 推論에 依하여 外界에 對한 信念을 說明하려고 했다. 氏에 依하면 感覺은 다만 나의 感觸(Affektion) 따라서 나의 狀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感覺을 무엇의 結果라고 보는 까닭에 나는 思惟에 있어서 感覺을 超越하여나 自身 속에 있지 않는 外界에 있다고 생각되는 原因에 到達한다. 「쇼펜하우어」에 있어서서는 感覺悟性 及 直觀은 抽象的 本質性이다. 感覺은 悟性을 媒介로 悟性에 本具한 機能에 依하여 처음부터 外物의 直觀에 옮겨진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헬름홀쯔는 이와 反對로 經驗換言하면 獲得한 表象과 感覺과의 結合에 重點을 두었다. 그는 後에 推論의 形式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推論과 均等한 諸過程의 總體를 無意識的 推論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의 知識이 生成될 때에 나타나는 推論과 均等한 諸過程의 活動을 많은 事實에 依하여 證明했다. 그리하여 外界의 意識이 生成되는 過程에 있어서 共同作用을 하는 思惟의 諸過程을 歸納的, 實驗的으로 證明하는 同時에 外物의 直接 所與性을 主張하는 敎說을 決定的으로 整理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外界와 外的 客體에 對한 意識成立에 對한 한 큰 哲學的 問題를 解決하는데 不朽의 功績을 남겼다.

그러나 헬름홀쯔의 이 見解에도 依然히 主知主義的 假定이 作用하고 있다. 因果律은 氏에게 있어서서는 先天的 所與의 法則이며 우리 自身과 우리로부터 獨立한 他者를 거기에 依하여 區別하는 互相貫合한 推論의 制約이라는 것을 假定했다.

그러나 헬름홀쯔도 그 後에는 原因의 概念을 齊一性(Gleichförmigkeit)과 從屬性의 關係에 들여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感覺과 無意識的 推論 外에 意志의 衝動을 그의 觀察에 採用했다. 데카르트 以來로 意志가 感覺을 批除할 수도 없고 齊來할 수도 없고 또한 固定식힐 수도 없다는 感覺의 徵標(Merkmal)를 意志로 붙여 獨立한 것을 믿는 根據로 認定했으며 또한 利用했다.

「틸타이」는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헬름홀쯔」가 意志衝動으로 붙여서의

不可排除性, 不可齊來性 及 不可固定性 等を 包含한 諸性質의 根抵 우에서 諸感覺을 補充함으로 말미아마 外界가 그들에게 잇서서는 思惟過程에 成立한다면 나(디氏)는 經驗的인 生命力에 充滿한 人間을 基礎로하며 衝動體系와 意志上의 諸事實과 그리고 그들 兩者와 結合된 諸感情의 一層 廣範한 作用을 證明할 터이며 同時에 外界의 實在性은 다만 假定으로서의 價値 밖에 갖지 안엇다는 假定을 脫却하려고 한다. 이 假定을 헐름홀뜨는 우리가 세울 수 잇는 假定 中에 가장 簡單한 것이며 異常히 廣範한 適用範圍를 가진 試驗濟이 確實性을 가진 것이며 行動에 對하여 가장 生産에 當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과 並行하여 다른 否定키 難한 觀念論的 諸假定이 可能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덜타이」는 外界에 對한 信念을 思惟聯關으로붙어 說明치 안코 衝動과 意志와 感覺에 나타나는 生의 關聯(이것은 思惟過程에 均等한 諸過程에 依하여 媒介된다)으로붙어 說明했다.

사람은 自己라는 有機體와 外界間의 因果關係 及이 聯關으로붙어 生하는 個別的, 所與的 生活條件의 効用或은 害毒을 洞察함에 依하여 自己 自身을 自己의 環境에 對하여 適應식히는 生物이라고 생각할 년지도 모른다. 그러나 自然은 한甚히 적은 費用과 手段으로 그리고 勿論 多少粗野하고 平凡한 方法으로 生物로 하야곰 그 生活條件에 適應하게 하는 것이다. 諸衝動의 體系, 諸衝動과 結合된 快不快의 感情, 外界의 恒存原因級(konstante Urechenklasse)으로붙어 規則的으로 惹起된 心情狀態(Cemutzustand)에 잇서서 個人과 類의 保存이 直接으로 外的 生活條件에 對하여 關係를 가졌다. 그런 故로 모든 心的 生命의 構造와 心的 生命의 根本類型은 「印象과 心象이 우리의 衝動體系와 衝動에 結合된 感情에 合目的的 作用을 惹起한다」는데 成立된다. 이 反作用에 依하여 有意運動이 惹起되며 環境에 對하여 自我生命이 適應된다. 그런故로 動物的 人間的 生命統一性은 內部로붙어보면 어떤 段階에 잇서서든지 衝動 快不快感 及 執意의 束이다. 營養衝動, 生命衝動, 子女愛, 防禦, 報復衝動, 運動 及 靜止慾 及 이들에 結合된 社會的 知的 感情과 執意 等이 合하여 人間의 意志力을 形成하며 의意志力은 말하자면 손을 充足과 滿足을 向하여 四面八方에 뻗치고 잇다. 刺戟과 意志의 反作用과의 사이에 介在한 知覺과 思惟의 過程은 衝動生活과의 關聯에 잇어서 擴大되며 多樣化된다. 그런故로 知覺과 思惟의 過程은 말하자면 內的 側面 即 關心主義 及 內的 勞力으로붙어 由來하는 勞力(Energie)과 感情強調(Cefuhlsbetonung)를 가졌다. 그리고 이 內的 側面에 依하여 思惟와 知覺過程은 自我生命(Eigenleben)과 結合된다. 自我生命 다시 말하면 그 外側이 우리의

肉體를 形成하는 行動, 感情, 執意로불어 우리의 知覺에 自己와 客體 內部와 外界와의 區別이 發生한다.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우리의 信念問題의 解決을 이 方向에 求함은 鄧타이 自身이 認定하는 바와 같이 벌써 氏보다 훨씬 以前에 始作된 일이다. 어떤 理論이든지 客體의 實在性이 그 안에 成立되 는過程을 論할 때에는 感性的 印象이 意志에 左右되지 안는다는 點을 利用했다. 이런 생각은 「록크」(Locke)가 外物에 對한 認識을 論할 때에 가장 單純한 形態로 確立시켰다. 氏는 實踐에 充分한 外物의 實在性은 다음 네 가지의 根據 위에 設다고 봤다. (一) 感性表象은 밖으로불어 感觸되는 感覺機官의 作用可能한 狀態에 依한다. (二) 記憶心象은 隨意로 가질 수가 있지만 感性印象은 意志衝動에만 依해서는 排除할 수도 없고 나타나게 할 수도 없다. (三) 感性印象에 結合된 感情은 意志에 依하지 안는다. 그리고 다만 感情의 表象만은 우리에게 快感이나 不快感을 줄 수 없으나 感性印象에 結合된 感情은 우리에게 快不快感을 줄 수 있다. (四) 單一한 感覺의 證明은 흔히 다른 感覺의 證明에 依하여 確實性을 얻는다. 우리의 視覺에 나타난 불은 손을 가까이 대 봄으로 말미아 마 高度의 實在性을 얻는다.

「버클레이」(Berkley)는 「우리의 感性知覺의 外的 原因의 實在에 對한 確信은 記憶心象에 比하여 그것이 一層生命있고 (lebhaftig)確乎不動하며 秩序가 잇스며 不變的, 不可侵의인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록크나 버클레이는 外界를 表象事實 밑이 整理했스며 또한 意志로 불어 의 獨立性 即 感覺의 徵標를 媒介로 思惟에 感覺을 補充해가지고 外界를 說明했다.

다음에 鄧타이 自身의 見解를 簡單히 論述해보자. 氏에 依하면 다만 表象만에는 外界가 現象에 끝인다. 그러나 우리의 全知情意的 本質에 外的 現實이 나타난다. 따라서 外界는 다만 表象으로서가 아니라 生命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外界를 結果로불어 原因에 推論함에 依하여서나 或은 무슨 推論에 對應한 過程에 依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原因과 結果의 表象 自身이 우리의 意志生活에서의 抽象에 지나지 안는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衝動의 體系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衝動이란 것은 缺乏으로불어 滿足에 衝迫하는 것이며 이 缺乏과 滿足과의 關聯에서 運動衝動이 이러나며 衝動과 感情과의 體系로불어 抵抗經驗(Widerstandserfahrung)의 複合的 性質이 解決되게 된다. 即 우리의 衝動이 順調로 充足되지 못하고 抵抗되는 무엇이 잇는 곳에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의 根據가 있다. 그런데 이 抵抗感覺은 意志衝動(Willensimpuls)의

經驗과 志向制止(Hemmung der Intension) 換言하면 意志制止 (Willenshemmung)의 經驗과가 結合된 것이다. 따라서 意志衝動이 制止되는 곳에 抵抗 卽 自己에게 抵抗하는 것에 對한 經驗이 생긴다. 이것이 卽 外界의 實在性을 믿는 根據가 된다는 것이 틸타이의 見解의 大要이다.

틸타이는 그의 生命哲學的 立場에서 이 問題의 解答을 意志經驗에 求한 것이다. 우리는 氏의 意圖와 努力에 多大한 尊敬을 表하는 同時에 光輝있는 氏의 研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틸타이와 함께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의 起源을 意志經驗 속에 成立하는 抵抗經驗에 求할 수는 없다. 氏가 自說의 眞理性에 對한 한 佐證으로 생각한 「쿠쓰바울」의 研究는 틸타이의 생각한 바와는 反對로 우리의 問題에 多大한 힘을 줄 수는 없다. 初生兒의 右頰을 輕撫하면 右便으랴 左頰을 輕撫하면 左便으로 兒孩가 머리를 轉向하는 事實을 가지고 곳 初生兒가 方向을 意識한다고 하기는 困難하다. 一步를 讓하여 方向을 漠然하게 意識한다 하드래도 그것을 가지고 外界를 意識한다는 佐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外界의 實在性을 믿는다고 함은 너무도 速斷이다. 또 氏는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을 意志活動에 나타난다고 보아 우리는 意志活動만에 卽 意志活動에 나타나는 抵抗만에 그 信念이 成立된다고 볼 수는 없다. 꿈 속에서도 우리는 意志活動을 가진다. 따라서 無數한 強力의 抵抗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나는 바이다. 꿈 속에 나타나는 泰山, 巨嶽, 猛獸, 外界, 他人, 여러 가지 關係를 包含한 場面 等은 적어도 꿈 속에서는 否認할 수 없는 嚴然한 實在性을 가진 것이다. 現實的, 覺醒한 意識에 對하여는 說或 꿈이 現實과 區別되는 若干의 徵標를 가졌다 하드래도 꿈에서는 꿈 속 事實과 場面の 實在性은 疑心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意志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붙어 獨立한 우리와 生成 消滅을 같이 하지 않는 外的 實在性을 單純히 意志經驗에 나타나는 抵抗經驗에 成立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現實의 猛獸도 抵抗經驗 中에 夢中の 猛獸도 夢中の 抵抗 經驗 中에 實在性의 根據를 가졌다고 함은 結局 抵抗 經驗이 外界의 實在性의 根據가 되지 못한다는 것 卽 論者의 企圖와 正反對되는 結論을 얻게 된다. 夢 中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對立한 아니 우리에게 反抗하는 外界는 그것이 嚴然한 實在性을 우리 意識에 對하여 가지면서도 結局 우리의 頭腦의 作用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萬一 筆者의 이 見解에 大過가 없다면 主知主義的 見解에는 外界가 表象或은 思惟에 끝이거나 或은 人間思惟의 根本法則이라고 誤認된 因果律에 依하여 推論된 것이지만 意志經驗에 잇서서는 外界가 一義的으로 實在性을 가지는 것이라는 「틸타이의 主張」은 承認될 수 없다. 틸타이의 見解도 結局 氏의 努力

에不拘하고 氏가 極力反對한 氏 所謂 主知主義的 見解와 運命을 같이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外界의 實在性은 如何히 如何히 해야 確立식힐 수 있을 것일까. 나는 여기서 拙見을 論述할 機會를 얻었다. 많은 思想家 特히 「틸타이」가 賢明하게도 斷定하 바와 같이 外界의 實在性은 그 根底에 잇서서는 智力에 對해서가 아니라 意志에 對해서 即 信念에 成立되는 것이다. 우리의 智만에 對해서는 外界는 表象에 끝이거나 或은 假定이란 不名譽에 끝일 것이다. (이 點에 對한 說明은 이미 위에서 論述했으므로 여기서는 略한다.) 나도 外界의 實在性의 根據를 意志에 두는 點에 잇서서는 틸타이와 같다. 氏는 衝動體系로서의 人間의 根本經驗 (即 우리가 어떠한 衝動을 가질 때에 밋서 外界의 存在를 밋는 것인데 衝動은 生命의 가장 根源的 活動이니 外界의 實在性은 生命의 根源的 經驗에 잇서서) 밋서 成立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이 點에 잇서서 나는 틸타이와 見解를 달니한다. 氏는 生의 根源的 活動 即 衝動에 外界의 實在性의 信念이 成立된다고 본 까답에 「쿠쓰바울」의 初生兒에 對한 實驗(上述한 바)을 自說에 利用했스며 氏 自身의 初生犢에 對한 觀察(即 初生犢이 方向을 意識하며 自身과 自身 아닌 것을 區別할 수 있다는 것)을 自說의 實驗的 證佐로 採用했다. 그러나 初生兒나 初生犢이 自身과 自身 아닌 것을 區別할 수 잇스며 또는 方向을 漠然하게나 마 意識한다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外界에 對한 信念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問題삼는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이란 것은 外界가 나와 消長을 달니하며 내가 그것을 認識하거나 말거나 或은 意志의 對象을 삼거나 아니삼거나 外界는 그것 自身 實在한다는 것을 明白히 意識하고 밋은 意志음을 가르킴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意味의 信念은 意志經驗만에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意志經驗 위에 觀察과 推論이 加해져야 하는 것이다. 初生犢은 勿論이어나와 初生兒도 觀察과 推論을 못하는 것은 幾多의 學者가 여러 가지 實驗과 觀察의 結果로 論定하는 바이다. 여기서 한 가지 注意할 것은 틸타이가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의 起源을 問題삼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起源을 問題삼았다 하드래도 前述한 바와 같이 生의 根本活動에 解答을 求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人間의 活動은 그것이 如何히 長成한 後에 或은 校訓或은 鍛鍊或은 其他 어떠한 偶然한 刺戟에 依하여 發現하며 完成하드래도 그 萌芽或은 素因은 生의 根源에서 汲取할 수 잇는 것이다. 따라서 如何히 高尚한 精神活動이거나 如何히 巧妙한 身體活動이 거나를 勿論하고 그 根源은 生의 衝動或은 本能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잇지 않은가. 그렇다면 何必 外界의 實在性 問題를 집어내어 論할 必要가 어 디 잇으리오. 우리의 關心은 도리어 生이 本質에 屬하며 生의 根底에 萌芽를

든 것이 어떠한 것을 機緣으로 發現하며 完成되며 어떠한 法에 그 論理的 根據가 確立되는지를 說明하는데 있다. 一定한 數의 事例의 特性을 究明할 때에는 그것들의 共通한 性質과 條件보다는 非共通的 特性을 明白히 하라는 것이 보다 重大한 일이다. 外界의 實在性 問題를 論하는데 있어서도 緊切한 것은 生活의 根源的 活動 뿐이 아니라 이 根源的 活動 위에 무엇이 加함으로 因하여 實在性이 成立되는냐는 것이다. 나는 이 問題를 二段的으로 생각한다. 其 一은 外界實在의 意識或은 信念이 무엇에 依하여 發生하느냐는 것. 其 二는 이 意識或은 信念을 우리는 어찌하여 正當한 것이라고 承認하게 되느냐는 것. 一은 外界實在의 意識或은 信念의 根據와 發生順次를, 基 二는 이 意識或은 信念의 正當性의 說明이다. 우리가 外界의 實在를 믿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外界가 自己 아닌 他人과 消長을 달니하며 그것의 存在가 他人과의 關係를 要하지 않는 것을 觀察한 까닭이다. 即 自己 아닌 것 他人이 存在하거나 말거나 또는 他人이 外物을 보거나 말거나 또는 意志의 對象이 되거나 안되거나 外界는 依然히 存在하는 것을 看取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外界가 他人으로부터 獨立的 存在性을 가진 것을 認知하게 된다. 그러나 一般으로 陰影은 따라서 사람의 陰影도 物體或은 사람이 存在치 않을 때에는 그 곁에 存在치 않으며 그 物體, 그 사람을 따라 移動하는 것을 觀察하는 까닭에 陰影이 物體或은 사람과 光과의 接觸에만 成立되는 附隨現象인 것을 認知하게 된다. 그런데 外界가 他人으로불어서의 獨立的 實在性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外界가 自己로불어도 獨立的으로 實在한다는 것을 認定할 수는 없다. 他人과 自己와의 同等性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他人과 自己와가 同等性을 가져야만 他人으로불어 獨立的한 外界의 實在性을 自己에게 對해서만 否定할 權利와 理由를 發見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他人과 自己와의 同等性은 어떠한 法에 構成되는 것인가. 우리는 自我가 모-든 生活 即 知的, 精的, 的 生活의 中心點, 統一點인 것을 안다. 對象은 그것이 知的 對象인 限 自我의 知力或은 意識에 依存하는 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自我의 意識을 絶한 것은 對象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自我에 對해서는 全然空無다. 對象은 그것이 對象인 限 主觀의 意識에 依存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對象에 對한 自我 即 主觀의 中心性이 認定될 뿐 아니라 時間적으로 보아서나 空間적으로 보아서 同一치 아니한 各 時點或은 各處에서 經驗한 모-든 經驗은 主觀의 意識內에서 整理되며 綜合되어 一定한 統一을 가지게 되는 點에 있어서도 自我의 中心性, 意識의 中心性이 主張된다. 上述한 意味에 있어서의 自我中心性을 우리는 認識論的 立場에서는 適當히 承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自己의 自我가 世界를 經驗하는 限 世界의 中心일 뿐 아니라 各人의 自我도

各人이 各各 世界를 經驗하는 限 世界의 中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點에 있어서 「파스칼」은 神(世界)를 圓周없는 圓 따라서 그 中心이 隨處에 無限히 있다고 본 것이다. 心理發生的으로 說明한다면 甲은 爲先自己를 中心으로 한 世界를 가지는 同時에 乙丙도 亦是 刻刻 乙丙 自身을 中心으로 한 世界를 가지는 줄 甲 自身이 알게 된다. 至今丙이 이 世上에서의 存在를 이 러버린다고 하자. 이 때에 甲乙은 丙의 存在가 없어짐으로 因하여 丙이 中心 되는 世界의 存在 即 現實存在(Sosein)는 消滅 或은 變化했으나 實存으로서 의 外界는 丙의 不在에 不拘하고 如前히 存立한다고 본다. 또 乙의 存在가 消滅되어도 甲은 實存으로서의 外界가 乙丙의 消滅에 따라 消滅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한 생각 할 수도 없다. 同時에 甲乙丙은 各各 自己가 經驗 하는 世界의 中心이면서도 他面에 있어서는 甲은 乙丙을 乙은 甲丙을 各各 自己가 經驗하는 世界에 나타나는 存在 上 自己의 意識에 依存하는 附隨物 로도 볼 수가 있다. (勿論 主知主義的 認識論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如何 한 根據 上에서 他人이 存在 上 自己에게 依存치 않고 獨立的 實在性을 가 진 것을 承認하게 되는가. 그것은 認識論 上으로 보아서 甲의 存在가 乙丙에 意識되는 限 甲은 乙丙에 依存하는 것 같으나 甲 自身은 自己가 乙丙에 依 存한다고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甲 自身에 乙丙이 依存하는 것이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甲은 乙을 乙은 甲을 各各 自己가 中 心되는 世界에 依存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 不拘하고 甲의 存 在가 消滅된 때에도 乙이 存在를 維持하며 逆으로 乙이 存在를 잃어버린 때 에도 甲이 存在하는 것을 第三者인 丙이 觀察한다. 丙은 여기 있어서 마치 自己가 中心되는 世界에 存在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甲乙이 事實은 自己에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와 同等性을 가진 것 따라서 獨立的 存 在인 것을 認定하게 된다. 一言으로 要約하면 各人은 世界의 中心的 統一點 이란 見地에 있어서 他人이 自己와 同等性을 가진 獨立的 存在라는 것을 要 請하게 된다. 他人의 自己와의 同等性의 意識은 意志經驗 中에 成立하는 抵 抗經驗과 觀察에 依하여 構成되는 것이다. 딜타이의 主張은 여기에만 通用되 야 妥當性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信念이 어떻게 發生하는지를 보았다. 다음에 우리는 이 信念의 正當性은 果然 根據세울 수 있는 것인가? 或은 根 據세울 수 있다면 그 根據는 무엇인가를 論해보자. 外界世界가 他人으로붙어 서의 獨立的 實在性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自己에게 對해서도 實在性을 가진 다는 것은 單純한 類推는 아니다. 類推以上の 것이 包含되었다. 他人이 自己 에게 對해서 獨立했다는 것은 他人甲이 他人乙로붙어 獨立한 것을 觀察한

結果를 가지고 類推하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는 「딜타이」의 力說한 바와 같은 意志經驗 中の 抵抗經驗이 우리에게 他人의 實在性的 承認을 强要하는 것이다. 全生命의 嚴肅한 態度가 喪面에 伏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知性만을 作用식혀서 知識을 云謂하는 限 客觀에 對한 主觀, 內容에 對한 意識의 優位를 拒絶할 수 없는 것은 思惟한 經驗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異意를 품지 않을 것이다. 如何히 全生命의 嚴肅한 眞摯한 態度로서의 信念이라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體驗에 끄치게 하지 안코 概念의 領域 따라서 反省의 領域에 옮겨오면 벌써 그것은 意識內에 있는 意識內容 따라서 意識의 事實이 되고 만다. 故로 前述한 主知主義的 立場에 對抗하여 現狀論的 見解를 離脫하기는 困難하다. 「딜타이」의 見解에 對하여 不滿을 품은 筆者의 態度도 이 點에 있어서 辨證되며 正當視되지 안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外界의 實在性を 問題삼는 限 그것은 哲學的 問題로 따라서 思惟에 있어서 問題삼는 것이다. 哲學은 知識의 立場이다. 따라서 哲學에서 云謂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意識의 地盤에 있어서이다. 故로 一般으로 意識을 超越한 것 따라서 意識으로 붙어서의 外界의 獨立的 實在性を 證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知識의 制限이요, 意識의 制約이다.

그러면 우리는 他人의 自己로붙어서의 獨立的 實在性を 媒介로 하여 成立된 外界의 實在性的 意識에 對하여 우리는 그 正當性を 拒否할 것인가. 哲學은 外界의 實在性を 承認치 못할 運命을 가진 것일까.

나는 반드시 그러타고는 생각지 않는다. 哲學은 結局 體驗의 徹底的, 根源的, 整合的 反省이다. 우리가 體驗을 整合하게 徹底하게 反省하려면 外界의 實在性を 承認치 않을 수 없다는 理由로 勇敢하게 冒險的으로 承認하며 믿는 것이다. 「피히테」가 「우리의 思惟는 不可避的 循環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서 思惟를 斷念할 것이 아니라 勇敢하게 이 循環 속에 뛰어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外界의 實在性を 確信할 수 있다. 그러나 外界의 實在性は 信念이요, 論理的 證明이 아니니만큼 이 實在性を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信念, 體驗의 絶對性的 所以다. 外界의 實在性は 論理的 證明에 依해서가 아니라 全生命의 體驗과 觀察에 依하여 確信되는 것이다. 그러나 「딜타이」에 있어서와 같이 生의 根源的 活動인 衝動에 있어서가 아니라 思惟를 包含 한 보다 適切하게는 思惟를 通過한 生의 自覺的 段階에서 外界의 實在性에 對한 確信이 成立된다. (完)